



# 한국의 보물, 해인<7>

해인을 찾아낸 사람, 해인을 가지고 숨은 곳, 해인의 출현 여부

## 해인이 용궁의 보물에서 세계통일의 위업을 성취해줄 성보(聖寶)로

해인설화의 번호	해인을 찾아낸 사람	해인을 가지고 숨은 곳	해인의 출현 여부
가①	중국 상해에 있는 정만영	설명이 없음	설명이 없음
가②	없음	설명이 없음	설명이 없음
가③	육군 도원수 정만인	설명이 없음	계룡산에 도읍하려 올 것이다.
가④	없음	설명이 없음	설명이 없음
가⑤	숙종대왕의 신하 정만영	어느 바다의 섬에 정만영이 지금도 살아있다.	
가⑥	정만용이라는 중	부안 변산 청학동의 무릉도원	백 몇 살 또는 이백 몇살 되는 정만용이 살아있다. 해인이 나오면 세계통일이 된다.
가⑦	정만인	남해	언제 올지 모른다.
가⑧	정만영	설명이 없음	설명이 없음
가⑨	정씨 성의 상좌 중이 흠쳐갔다.	설명이 없음	설명이 없음
가⑩	아직은 없었다.		앞으로 성공할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예정이다.
가⑪	조선 말년의 정만인이라는 중	용국(龍國)	언젠가는 돌려받는다. 우리나라가 7개국의 조공을 받으며 잘 살 것이다.
가⑫	홍길동	율도국 (지금의 독일)	홍길동이 해인을 가지고 독일을 발전시켜 주었다.
가⑬	없음	설명이 없음	설명이 없음
나①	사명당	바닷가의 자하동(紫下洞)	사명당이 지금도 그곳에 산다.
나②	없음	설명이 없음	설명이 없음
나③	없음	설명이 없음	설명이 없음

편집자 주:

해인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김탁 박사님의 글을 7회째 연재 중입니다. 김 박사님은 1963년 생으로 한국 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설 한국학 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증산교단 미륵신앙의 성립과 전개』의 40여 편의 논문과 『조선의 예언사상』(2016), 『일제강점기의 예언사상』(2019), 『정감록과 격암유록』(2021), 『증산사상과 한국종교』(2022), 『시루와 배』(2023) 등 12권의 책을 저술한 신종교 학계의 저명한 연구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 산골에 거주하면서 오직 학문 연구에 매진하시는 김 박사님의 글은 독자님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남연군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해인으로 해인사를 창건한 다음 해인은 해인사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깊숙이 숨겨졌다.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해인은 정만영 또는 정만용 혹은 정만인이라는 인물에 의해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그는 조선 말기 대원군 시절 때 살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 정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신비한 인물로 전한다. 다만 정만인이 풍수의 달인으로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소를 정해 주었다는 일화가 전할 따름이다. 정만인은 해인을 가지고 남해 바닷가의 섬, 변산의 청학동, 용왕국, 율도국, 자하동 등지에 은신하고 있다가 점차 우리나라가 상등국이 될 시점에

해인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인은 개인이나 집단의 바람을 성취해주는 보물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국보로 믿어지기 시작한다. 해인이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날,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받는 일등 국가가 될 것이며, 세계통일을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해인이 용궁의 보물에서 세계통일의 위업을 성취해줄 성보(聖寶)로 믿어졌 것이다.\*

김탁 박사 / 신종교 연구가

## 단군민족의 뿌리 역사 VI

###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 V

(지난호에 이어서)

#### 단군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 ⑥

#### 씨받이, 형사취수제 등 결혼풍속이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가계혈통을 계승하기 위한 방법으로 씨받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여자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악이라 하여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씨받이 제도는 최근까지 존재해 왔으며 임근택 감독이 만든 씨받이 영화도 있습니다. 여기서 씨받이 제도란 결혼한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처를 들이든가 일시적 계약으로 외부 여자를 선택하여 아들을 낳으면 본처 자식으로 입양하여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풍속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씨받이 제도를 찾아볼 때 야곱 하나님의 조상 아브라함 때, 본처 사리가 늙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자 몸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하나님의 장자권을 물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이삭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축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야곱 하나님이 본처 라헬이 자식을 낳도록 낳지 못하자 역시 몸종 빌하를 통하여 다섯째 아들 '단'이 출생하자 본처 장자로 입양하였고 야곱 하나님은 늙어서 열두 아들들의 장래 일을 예언하며 축복할 때 서자 출생이자 본처 장자로 입양했던 '단'에게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고조선 건국한 단군 민족이기 때문에 단군 민족이 천손 직계 민족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의 고대 결혼풍속 가운데 형사취수(兄死娶嫂)제도가 있습니다. 형



무궁화는 꽃잎과 꽃술, 그리고 씨방에 이르기까지 5차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무궁화는 영생을 상징하는 꽃이요 무궁화 노래가 동요를 비롯하여 가요에도 있다. 무궁화는 글자 그대로 영원히 피는 꽃이므로 '영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영생의 세계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사취수제도란 형이 결혼하여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살면서 그 처음 난 자식을 죽은 형님의 자식으로 입양하여 대를 이어가게 하는 풍속입니다. 이러한 풍속을 성경 창세기 38장에서 찾아보면 야곱 하나님의 넷째 아들이자 유대민족의 시조인 '유다가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 과정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곧 창세기 38장 6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이 없이 일찍 죽게 되자, 유다는 이스라엘 풍속에 따라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 '다말'과 결혼시켜 장자의 대를 잇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오난'은 형수에게서 난 자식이 자기 아들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고의로 외설을 하게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됩니다. 다음은 셋째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과 살게 해야 하나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에 보내어 장성한 때까지 기다리게 합니다.

'다말'이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셋째 아들 '셀라'마저 죽게 되니 유다의 집안은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동네에 가서 술에 만취되어

양을 치고 있는데 기생 복장으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이 찾아와 동침하게 되니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낳은 '베레스'는 유다의 직계자손이자 훗날 예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이러한 형사취수제도의 풍속을 자손들이 지키도록 규례화 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를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한민족의 결혼풍속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풍속이 한 뿌리에서 나왔으며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 VII

#### 단군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 ⑦

#### 한민족의 나라꽃 무궁화는 고대

### 명당 중의 명당, 이대천자지지(二代天子之地)로 알려져 있는 남연군묘

흥선군이 그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실권을 잡기까지의 행적은 아화 등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의 아버지 남연군이 비록 영조의 증손자인 셈이고 자신은 현손인 셈이지만 당시의 안동김씨 세도정치 하에서 그들의 권력에 위협이 될 남연군의 후손이 보위를 잇는다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을 뿐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래서 흥선군은 철저히 자신을 위장하고 안동김씨의 경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건달들과 어울려 지내는가 하면, 안동김씨 가문을 찾아다니며 구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 한편으로는 풍수공부를 하며 전국 명산이란 명산은 빠뜨리지 않고 찾아 다녔다. 무너진 왕권을 회복하고 실권을 잡기 위해서는 명당에 아버지 묘를 이장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여 년을 찾아다녔으나 마음에 드는 명당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정만인(鄭萬仁)이라는 지관이 흥선군을 찾아와, "덕산 가야산 동쪽에 이대(二代)에 걸쳐 천자(天子)가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묘를 쓰면 10여 년 안에 틀림없이 한 명의 제왕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광천 오서산에는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만대영화지지(萬代榮華之地)가 있습니다. 이 두 자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고 물었다. 흥선군은 망설이지 않고 가야산의 이대천자지지(二代天子之地)를 선택했다. 그런데 흥선군이 지관을 따라 그 자리에 도착해보니 이미 가야사(伽耶寺)라는 절이 들어서 있었고 더구나 묘를 쓸 자리에는 5층 석탑이 우뚝 서 있었다.

절의 탑 자리에 묘를 이장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흥선군은 차레차레 일을 벌여 나갔다. 그는 우선 경기도 연천에 있던 아버지의 묘를 임시로 탑 뒤의 영조 때 판서를 지낸 윤봉구의 사패지를 그 후손에게서 빌려 옮겼다. 이때가 1844년이다. 상여는 연천에서 가야산까지 왕송을 운구하는 일이었으므로 한 지방을 지날 때마다 그 지방민이 동원되어 매였고, 가장 마지막에 맨 '남은들' 마을에 기증되었다. 이상여는 지금도 '남은들' 마을에 보존되어 있다. 다음 일은 가야사를 폐사(廢寺)하는 일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흥선군이 전 재산을 처분한 2만 냥의 절반을 가야사 중들에게 주고 절에 불을 지르게 했다고 하기도 하고 당시의 충청감사에게 중국산 명품 단계버무를 뇌물로 선사하여 가야사 중들을 불러다가 강압하여 불을 지르게 했다고도 한다.

어쨌든 흥선군의 계략에 의해서 가야사는 폐사(廢寺)되고 탑의 뒷산에 임시로 모셨던 다음해인 1845년에 이곳으로 남연군묘를 이장하였다. 이때 정만인은 후에 도굴의 위험이 있으니 석회 3백 부대를 써서 관곽(棺槨)을 단단하게 다져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남연군묘 이장 후 흥선군은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가 명복으로 바로 고종황제가 된다. 남연군묘를 이장하고 18년 후다. 명복이 등극하여 대원군으로 정권을 잡은 흥선군은 가야사를 없앤 죄의식에 가야사와 탑의 은덕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가얏골 상거리에 보덕사(報德寺)를 새로 지어 주었다. 그 후 고종황제의 뒤를 이어 순종이 등극하였으니 남연군묘는 정만인의 예언대로 이대천자지지가 정확히 맞는 셈이다.\* 『문화원행백과』에서 부분 발췌

####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했던 사론의 장미

한민족의 나라꽃이라면 무궁화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국의 길거리와 공원마다 무궁화는 찾아보기 어렵고 벚꽃단지까지 조성되어 봄이면 벚꽃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꽃이 무궁화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고대 문헌중에 중국 진나라 때 관박이 쓴 사론(史記)에 있는데 여기에 군자국 유 훈화초(君子國 蕪華草)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자의 나라는 고조선 을 말하며 훈화초는 무궁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춘추전국시대 공자는 당시의 고조선을 일컬어 군자불사의 나라라 말하며 나라에 예를 잃으면 군자의 나라 고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분명히 무궁화는 고조선 시대부터 한민족이 즐겨 심고 가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유실

에도 군자지국 지방천리 다목근화(君子之國 地方千里 多木槿花) 하여 군자의 나라 조선에는 지방 천리에 무궁화 나무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무궁화를 사랑했던 역사는 신라 시대에도 이어져 중국과 서신을 교환할 때 신라라는 국호 대신에 근화향(槿花鄉)이라 했고 고려 시대에는 근역(槿域)이라 했습니다. 이조시대에 와서는 과거시험에 급제하면 무궁화를 월계관에 매달아 축하했으며 오늘날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외와 국가 공무원들의 각종 계급장과 휘장에 무궁화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사랑해 왔던 무궁화의 원산지인 고대 중동의 시리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꽃의 학명이 Hibiscus Syriacus(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라 하는데 시리아쿠스는 시리아 지방을 뜻하고 히비스쿠스는 이집트 미의 여신 히비스를 닮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 역시 무궁화를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 이가서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미와 사랑의 상징으로 사론의 수선화라는 말로 표현한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궁화의 유래를 알아볼 때 우리 민족이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사랑해 온 것은 고대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 그 지방에 붉게 피어 나는 무궁화를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서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는 뜨거운 초여름에서 초가을까지 매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꽃잎을 접어서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여 인내와 충절의 상징이 되고 영원성을 지닌 꽃이름처럼 이 땅에서 영원한 신의 역사를 이어가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의미하는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一行 徐輔睦